교육 과학 기술부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토플 시험을 개발하여 2012년부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지도하여 그 실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중, 고, 외국어고, 자사고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교들도 학생부와 입학 사정관제를 주요 입학 전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학생부의 외국어 성적란, 수상 기록란, 봉사 기록란에 기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입학 사정관제를 위해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시에도 외국어 학습에 관련해서 그 동안의 노력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당 협회에서는 초, 중, 고생들이 자신의 영어 능력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무료 테스트를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테스트는 무료로 운영되며 한국 최고의 영자 신문인 코리아 헤럴드와 언어를 통한 자원 봉사와 민간 외교를 실천하는 국제 통본역 사절단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 번역협회, 한국 번역 연구원, 한국 영어 교육 평가학회와 영어 전문 교사 양성 교육 기관인 타임스 미디어 등 여러 권위있는 기관들이 후원하는 시험으로 기본적인 회화와 영작은 물론 동시 통역과 매뉴얼 번역 등의 최고 수준에 이르는 영어의 모든 부분을 단계적으로 평가 가능하며 이 평가를 통해 자신의 실질적인 영어 활용 능력을 평가한 후 보다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